

##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No. 78 - Volume 2005 Issue 2

Summary in Korean

### OECD 경제 전망: 12 월 No.78 - 2005 년도 제 2 판

국어 개요

## 사설

### 보기보다 덜 활발한가?

Jean-Philippe Cotis, 경제국장

지난 몇 개월에 세계경제 성장은 널리 확산되었다. 이미 북미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강세를 보였던 경제 모멘텀은 현재 일본에서까지 확고히 안정된 상태며, 유럽 경우 최근의 부진한 경기세를 점점 벗어나고 있다. 유럽의 최종국내수요 성장률은 동향추세 수준에 여전히 미달된 수준이나 낮은 장기금리, 유로가치하락, 수출시장 활력에 힘입어 유럽은 경제 확장세에 이르게 되었다.

세계경제 성장이 대체로 강력히 추진되면서 상품시장 물가와 유가는 대폭 상승을 이루었다. 이 가격 상승은 유럽경제 회복의 장애요인이 되어 세계경제 확장세에 유럽의 가담은 제한적이었으나 총수요가 이미 상승세였던 지역에서는 수요 둔화의 효과를 보였다. 역동적이나 과동 또한 가득한 여건에서 경제 성과는 경제 내성력과 큰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 상관관계는 파괴적 폭풍, 에너지 공급 붕괴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운항을 계속 유지했던 미국이 뚜렷이 입증해 보였다.

최근 유가 파동에 맞서서 거의 모든 국가가 경제활동의 왜곡 없이 물가 안정을 이룩했다는 점은 중요하고 안심되는 사항이다. 유가 인상은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지지 않았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 역시 제대로 정착된 듯하다. 그 결과, 헤드라인 인플레이의 급등이 석유의 가격에 미친 전염 효과는 극소에 불과했다.

두 번째 라운드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 식품 및 에너지를 뺀 - 근원 인플레이의 행동으로 풀이된다. 미국 경우, 최근 가솔린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황이 거의 없는 여건에서 근원 인플레이는 2%대에 안정된 상태였다. 반면 지난 4 년 간 지속적인 경기 불황을 겪은 유로 지역은 근원 인플레이가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하락세를 드러냈다. 그 결과, 헤드라인 인플레이는 유럽중앙은행의 장기 목표를 소폭 넘겼을 뿐이다. 한편 상당히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경우, 경기 회복이 가계 수요 부문까지 확산되는 바, 근원 인플레이가 플러스 영역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다.

향후 유가 급등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 물가상승 압력은 점점 위축돼야 할 것이다. 실로 미국 경제활동은 가동력 이상으로 확장되어 근원 인플레이가 소폭 상승세에 그치는데 비해 유로 지역은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물가 압박으로 근원 인플레이가 낮은 수준에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가 안정이 유지되는 가운데 아시아·미국 경제의 강력한 동인이 작용하고 석유 수출국의 높은 총수입이 재지출에 활용되면, 세계경제의 지속 성장세는 회복기의 유럽경제에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 점은 본 *경제전망*의 기선에도 시사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을 둘러싼 위험도 만만치 않은데 장기금리 인하, 자산가격 하락은 물론 유가급등 재발, 경상수지 불균형 악화, 급격한 환율 재조정 등이 그 예다.

위험 사항은 재정변수나 자산가격처럼 단기적 행태가 수시로 불규칙한 요소를 관련시키는 만큼 위험의 잠재적 영향 및 타이밍을 명확히 정의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은 예측작업 상의 중심 각분을 둘러싼 위험 평가 모형으로 게재하는 데에 그친다. 왜냐하면 위험이 가시화될 경우, 경제성장 및 물가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각국의 경제 내성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에서 향후 2년 동안 경상수지 불균형의 실질적인 악화가 예측되는 바, 2007년도 미국 대외적자는 GDP의 7% 수준을 웃돌고, 중국 및 일본 흑자는 극도의 대폭 규모로 전환한다는 점은 큰 우려다. 이 불균형은 부적당한 거시경제 정책을 대폭 반영하고 있는데 예로 미국의 심한 재정 적자와 저축에 불리한 조세 유인, 일부 아시아 신흥경제국의 시장점유율 극대화에 편중된 ‘중상주의적’ 환율 관리 등이 있다. 지난 *경제전망*에서 강조했듯 이러한 정책기조는 달러표시 자산에 대한 기호 위축과 결부돼 있어 경상수지불균형의 해소 과정을 무질서하게 만들 위험성이 크다.

이런 시장선호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결과는 뻔해 보인다: 미국 경우, 장기금리 인하, 집값을 비롯한 자산가격 하락; 미국 외 근원 인플레이가 이미 낮은 수준이고 수시로 하락세인 일본 및 유로지역 경우, 급격한 유로화 가치 상승과 강력한 물가하락 위험; 이어 최종에는 세계경제성장 부진. 현재 경상수지의 심한 불균형을 감안하면, 정책조정 수립이 보다 시급해진다. 정책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성장 구축과, 모멘텀에 대한 지나친 의존 제거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가격을 둘러싼 위험 평가는 수월치 않다. 실로, 유가 움직임이 단기에 크게 지나쳤더라도 중기의 상승 추세에는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덜 극단적으로, 경제활동 및 물가에 대한 고유가 영향이 전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는 짐작도 가능하다. 또한 실질소득손실이 지속되면, 임금의 가속화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변동이 큰 고유가가 투자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점차적으로만 드러날지 모른다.

재정·경상수지 악화로 정책당국이 겪는 어려움은 명백하다. 이 난제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 조정이 절대 필요하다.

총수요가 활발한 미국은 현행의 통화긴축정책과 동시에 조기 재정긴축 및 세계개혁 추진을 병행하여 저축/투자 균형을 복구해야 한다. 인구 노령화로 공공지출 압력 증대에 맞선 일본은 신속히 재정긴축을 추진해야 하며, 생산부문

격차가 충분한 플러스 형태로 전환되고 물가하락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는 금융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유럽지역은 기초 인플레이가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불황조차 고착된 상태인 만큼 경기회복이 모멘텀을 충분히 거두어 들여 내성력을 보강시키고 난 다음에 통화긴축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데 이 정책은 몇 분기 후에나 적용 가능할 듯하다. 아울러 유로지역 정부당국은 활발한 해외수요와 경기수용적 통화여건을 잘 활용하여 경제개혁 추진을 활성화하고 또한 돌아온 경기회복 모멘텀에 상응한 속도로 공공재정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경기회복 유지와 동시에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대보다 지출 경감에 특히 우선순위를 두어 적자감소추세가 경제성장 친화적이면서, 오래 지속되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하고 높은 성장세를 누리게 된다는 점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 요컨대 무역체제의 개방 촉진 및 부단한 경제개혁 수립을 통해 이러한 ‘세계적 공익’ global public good 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도하 라운드의 성공적 완결이나 농업개혁 상의 진전 확보는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성장세 구축에 적잖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 OECD 2006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OECD 저작권 및 원본 출판물의 표제를 언급할 경우  
본 개요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개요는 영어와 불어로 각각 발간되었던 OECD 원본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OECD 출판물과 개요는 OECD Online Bookshop**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Fax: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